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會’의 일본영토론 조작방식

최장근*
niohnbu@dae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고문서를 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에 대한 부정 |
| 2. “일본의 공식지도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론 | 5.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은 무효”에 대한 반론 |
| 3. “한국 고지도에 우산도는 독도”에 대한 부정 | 6. 맺으면서 |

主題語: 죽도문제연구회(Takeshima Problem Study Group), 다케시마(Takeshima), 시모조 마사오(Shimojoe Masao), 독도(Dokdo), 논리조작(Logical Operations)

1. 들어가면서

독도의 역사적 사료를 영유권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¹⁾ 그런데 과거 일본제국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무시하고 러일전쟁 중의 혼란한 틈을 타서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방법으로 「시마네현 고시40호」라는 이름으로 「무주지 선점」 조치로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했다.²⁾ 그래서 오늘날 일본정부는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다. 침략한 영토는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전적으로 분리되었다.³⁾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1) 송병기(2004) 「地方官制 編入과 石島」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pp.112-132. 송병기(2004) 「광무(光武)4년(1900) 칙령(勅令) 제41호」 『독도영유권 자료선』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37-241. 신용하(1996)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와 울릉도, 독도 행정구역 개정」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pp.192-201
- 2)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復刻版,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40-65. 川上健三 「竹島の島根県編入」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p.209-211
- 3) 최장근(2012) 「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 영토확립의 억측 주장」 『일본문화학보』 제5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1-277. 최장근(2010) 「한일협정에서 확인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한계성」 『일어일문학』 제4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429-447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모조의 논리를 분석하기로 한다. 최근에 시모조 마사오가 한국측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가 있다.⁴⁾ 즉 ①“일본의 공식 지도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한국 고지도에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는 것은 빨간 거짓말, ③“고문서를 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 ④“1900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라는 논리는 날조, ⑤“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허구, ⑥“미국의 러스크 서한은 무효”라는 것은 기만 이라는 것이다.⁵⁾ 본고에서는 고유영토론과 관련있는 ①~④을 가지고 「죽도=일본의 고유영토」론이라는 일본의 논리가 어떻게 창출되었는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 대해서 일본영토론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고찰은 있어도 일본의 논리 조작 방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⁶⁾

본 연구에 활용한 모든 사료는 죽도문제연구회 「죽도의 ‘진실’과 독도의 ‘허위’」⁷⁾에서 인용한 것임을 일러둔다.

2. “일본의 공식지도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⁸⁾

일본에서 발행한 공식지도에 대한 시모조의 사료해석과 그 논리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시모조는 한국측이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라고 하는 우산도가 한국 측 연구⁹⁾에서도 울릉도의 동쪽 약 2km의 죽서(竹嶼: 죽도)로 알려져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가

4) 한국측 주장은 호사카 유지와 김장훈이 함께 개설한 ‘독도의 진실’이다. 한국측 논리로서의 선행연구는 송병기(2004)『鬱陵島와 獨島』단국대학교출판부.2004. 송병기(2004)『독도영유권 자료선』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최장근(2012)「고지도상의 ‘우산도’명칭에 관한 연구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21-240

5) 下條正男, 「竹島の「真実」と獨島の《虚偽》」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index.html(검색일 : 2013년 12월 7일). 본문에서 시모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하도록 함을 일러둔다.

6) 대표적인 업적으로서 田村清三郎의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1996), 川上健三의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1966)가 있다.

7)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獨島の《虚偽》」에서 인용

8) 下條正男, 『“日本の公式地図に独島は存在しない”のは当然』,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1.html(검색일 : 2013년 12월 7일)

9) 나이토우 세이쥬우(2000)『독도와 죽도』제이앤씨, 内藤正中・金柄烈(2007)『史的檢証竹島・獨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8)『竹島=獨島論争』新幹社, 이외에도 한국학자는 물론이고, 일본학자들 중

독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¹⁰⁾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한국 측 연구자나 참고문헌을 제시해야하는데 단지 「한국연구자」가 그렇게 논증했다고만 말한다. 실제로 누가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논증을 했는지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둘째로, 시모조는 「그것은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에서 “우산도는 왜의 송도”라고 한 부분은 그것을 인용한 『동국여지지』의 원문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우산도가 다케시마(독도)라는 논거도 깨졌다.]¹¹⁾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와 『동국여지지』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로, 한국 측이 「일본의 공식지도에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논증하기 위해 열거한 것 즉, 행기도(行基圖)(8세기~16세기), 게이초일본도(慶長日本圖)(1612년), 쇼호일본도(正保日本地圖)(1655년), 겐로쿠일본지도(元祿日本地圖)(1702년), 향보일본지도(享保日本地圖)(1717년),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년), 대일본전도(1877년) 등과 일본이 1894년 작성한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에는 죽도와 송도(현재의 다케시마)가 그려있다. 그런데 그 송도가 조선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정한 증거이다.]¹²⁾라는 것에 대해 부정했다. 시모조의 논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주인 없는 땅의 다케시마가 일본령이 되는 것은 1905년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것은 편입 시점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었는지 여부이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편입했을 때,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다”¹³⁾라고 한 것처럼 “임자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다.]¹⁴⁾라는 주장이다. 위에 열거한 증거들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인 스스로가 제작하여 남겼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편입조치를 취한 것은 제국주의가 한국의 영토를 침략한 또 다른 어떤 형태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죽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넷째로, 시모조는 「일본 고지도, 즉 1905년 이전에 만든 일본지도에 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강변해도 그것을 근거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에서도 山辺健太郎, 堀和生, 梶村秀樹 등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들이 논증하고 있다.

- 10)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 11)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 12)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 13) 원문을 인용하면, 「他国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ベキ形跡ナク」라고 되어있음.
- 14)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 15) 한국 측에서 제작된 지도나 고문헌은 물론이고, 일본 측에서 제작된 고지도나 고문헌들 중에서도 죽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기한 지도는 한 점도 없다. 그런데 ‘죽도=일본영토’를 주장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연구자들은 한국영토로서의 증거를 부정하고 일본영토로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

게다가 일본에는 지금의 다케시마가 그려진 지도가 다수 존재하고, 공식지도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 공식지도에 다케시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그보다 한국 측이 해야 할 일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없는 고지도를 앞세우고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측이 제작한 1905년 이전의 지도는 영유권과 관계없는 지도라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의 공식지도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할 수 있는 지도는 없다.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논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¹⁶⁾ 위에 제시한 그런 자료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한국영토로서의 증거이다. 독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논리적인 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모조를 포함한 일본이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다섯째로, 「한국측은 일본 민간인 타나카 쇼쥬(田中紹祥)가 편집하여 히로후미관(博文館)이 1894년 발행한 『신찬 조선국전도』에서 죽도와 송도가 조선 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고 있고, 일본이 울릉도와 ‘다케시마(竹島)’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¹⁷⁾에 대해 그것이 성립되려면, 첫째, 에도시대까지 송도라고 불리던 독도가 1905년 편입의 시점에서 왜 울릉도의 호칭인 ‘다케시마’라고 명명되었는가? 둘째,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되어 있는데, 『신찬 조선국전도』의 송도는 왜 한 섬뿐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신찬 조선국전도』에 그려진 송도를 오늘날의 ‘다케시마’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한다.

사실 1905년 이전에 일본의 고지도나 고문서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했고, 지금의 독도를 「마쓰시마(松島)」¹⁸⁾라고 했다¹⁹⁾. 이 지도가 1894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1905년 이후의 ‘다케시마’의 명칭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도 동해의 섬에 대한 정보가 대체로 정확하여 조선 측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메이지 시대에는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토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인 중에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볼트의 잘못된 지도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²⁰⁾

16) 나이토우 세이쥬우(2000)『독도와 죽도』제이앤씨, 內藤正中・金柄烈(2007)『史的檢証竹島・独島』岩波書店, 內藤正中・朴炳涉, 『竹島=独島論争』新韓社, 이외에도 한국학자는 물론이고, 일본학자들 중에서도 山辺健太郎, 堀和生, 梶村秀樹 등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들이 논증하고 있다.

17)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18) 본문에서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섬을 ‘죽도’라고 표기한다. 독도를 가리키는 섬을 ‘송도’라고 표기한다.

19) 나이토우 세이쥬우(2000)『독도와 죽도』제이앤씨, 內藤正中・金柄烈(2007)『史的檢証竹島・独島』岩波書店, 內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新韓社, 大西俊輝(2004)『獨島』제이앤씨, 이외에도 정통적인 역사학을 연구한 대부분 학자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논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모조는 「한국 측이 고지도를 해석할 때, 지도에 그려진 도서의 색깔이나 섬 이름이 같은지 여부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문헌을 비판하고 사료를 조작하기 위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여 실증하는 것이다.」²¹⁾라고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도색한 영토지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라고 한다.

사실 도색으로 구분된 영토경계 지도는 도색으로 특정국가의 영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상의 논증방법이다. 더 이상의 논증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고지도나 지금의 지도도 마찬가지로 지이지만, 일반적으로 울릉도도 1개의 섬, 독도도 1개의 섬으로 표기한다. 즉 섬 군(무리)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다만 독도 주변의 상세도를 필요로 할 때는 동도와 서도를 나누어 그린다. 그런데 시모조는 독도주변에 작고 큰 6개의 섬과 암초가 산재해 있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왜 여러 개의 섬으로 표기하지 않았느냐? 라고는 하지 않고,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왜 동도, 서도 2개의 섬으로 표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강변한다.

여섯째로, 송도(실제의 독도)가 울릉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시모조는 「아즈마 후미스케(東文輔)는 “울릉도는 에도시대까지 죽도라고 통칭해 왔지만, 해도(海圖)에서는 울릉도가 송도로 표기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지도에 그려진 송도가 울릉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섬에는 그 동안 울릉도의 호칭으로 사용되어온 ‘죽도(다케시마)’로 호칭해야 한 것이다. 아즈마 후미스케가 일반적으로 울릉도를 죽도라고 해왔지만, 사실은 송도²²⁾라고 불렀다. 이처럼 1894년에 발행된 『신찬 조선국전도』의 송도도 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울릉도였던 것이다. 한 개의 섬으로 그려진 송도(울릉도)를 동도와 서도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²³⁾라고 주장한다.

사실 울릉도는 「울릉전도, 죽도, 관음도」 등 3개의 섬과 암초로 되어있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되어있다. 그런데 시모조는 독도는 2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울릉도는 1개의 섬으로 되어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 또한 시모조는 울릉도도 송도이고, 독도도 송도이라는 논리를 편다. 1905년 이전에 울릉도는 죽도이고 독도는 송도였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 이후 한국의 울릉도를 「송도」라 하고, 독도를 「죽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대략 1881년부터 울릉도를 송도를 부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편입하면서 섬의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죽도」라고

20) 일본지도 중에 3개의 섬을 표기하고 있는 지도는 대체로 勝海舟「大日本国沿海略図」、橋本玉蘭「大日本四神全図」에는 「죽도, 송도, 리앙쿠르 록」정도이다. 川上健三「わが国における島名の混乱」『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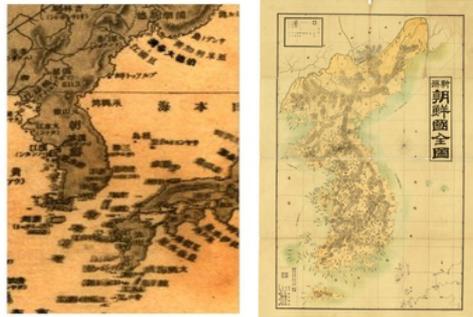
21) 전기의 下條正男 「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22) 원문으로는「鬱陵島ヲ竹島ト通称スルモ、其実ハ松島」라고 표기되어 있음.

23) 전기의 下條正男 「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찬 조선국전도』에 등장하는 「죽도·송도」의 두 섬은 하나는 울릉도이고 하나는 독도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울릉도를 나타내는 섬」이라고 억측을 부린다.

시모조의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시모조는 조선 동해에 한국영토로 해석되는 ‘죽도’(실제의 울릉도)와 ‘송도’(실제의 독도)가 표기된 지도에 대해서는 궁색할 때마다 늘 만능열쇠처럼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시볼트의 ‘일본도’이다.²⁴⁾ 즉 「이 죽도와 송도의 섬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1840년 시볼트의 ‘일본도’에서 실재하지 않는 ‘아르고 노트 섬’에 죽도로 표기되고 울릉도가 송도로 표기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후 서양지도에서는 울릉도가 송도로 표기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몇몇 지도에서는 울릉도를 송도로 표기하게 되었다. 『신찬 조선국전도』는 그 일례.²⁵⁾」라는 것이다. 시모조의 논리에 의하면 ‘과거 일본인들은 모두 자신의 나라의 지도를 그리면서 왜 잘못된 서양의 지도만 참고로 했을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왜 과거 일본인들은 자국의 지도를 하나도 올바르게 그리지 않았을까?’ 라도 또 반문하고 싶어진다.



「해도(海圖)77호」, 『세계전도』(1887)『신찬 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1894)

또한 시모조는 이 지도에서 송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1887년 제작의 『세계전도』인 「해도(海圖)77호」를 활용하고 있다. 이 지도는 울릉도가 「송도」로 되어있고, 독도가 「리양쿠르암」으로 표기되어 위도가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이 있다. 그런데, 「이 지도(신찬조선국전도)에 나와 있는 죽도, 송도는 경위도에서 죽도는 아르고노트도, 송도는 다쥬

24) 川上健三「わが国における島名の混乱」『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29-30 참조

25) 인용문 중에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시모조의 주장은 모두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1.htm에서 인용한 것임(검색일: 2013년12월5일).

레- 섬(현재의 울릉도)이다. 현재의 독도(당시 일본에서는 리앙쿠르 록으로 불림)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울릉도는 경도에서는 북-러 국경에 위치한 두만강의 바로 동쪽 부근, 현재의 독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송도’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현재의 울릉도임이 명백하다.²⁶⁾라고 하여 위도 상으로도 송도가 지금의 독도의 위도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이 지도에는 위도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지도가 경위도까지 정확한 지도는 거의 없다. 왜 하필이면 시모조는 1887년에 제작된 『세계전도』의 ‘해도 77호’를 기준으로 비교했을까? 그 이유는 마침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논리를 조작할 수 있는 꺼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설득력 있는 논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모조 논리의 특징은 자신 이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해석방식으로 한국영토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3. “한국 고지도에 우산도는 독도”의 부정²⁷⁾

여기서는 시모조가 “한국 고지도에 우산도는 독도”를 부정하는 논리에 관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시모조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산도와 관련되는 기사를 찾으면 “팔도총도”의 우산도가 어떤 섬인지를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울진현조”(산천[山川])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즉 “태종 때, 그 섬으로 도망하는 자가 많다고 듣고 삼척의 사람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로 명하여 그 땅에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섬을 비웠다²⁸⁾”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태종 16(1416)년 9월 김인우가 ‘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되어 태종17(1417)년 2월 5일에 복명될 때까지의 기록에서 『태종실록』의 기사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 『태종실록』에서 우산도의 초견은, “태종 17년 2월 임술조”이다. 거기에는 무릉도(울릉도)에서 귀환했을 김인우가 우산도 주민 3명을 데리고 “우산도에서 돌아오다”라고 복명한다. 이후 『태종실록』에서는 우산도를 실제의 섬으로 우산

26)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27) 「韓國古地圖の于山島は独島という眞っ赤な嘘」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2.html
(검색일: 2013년12월5일)

28) 원문은 「太宗時、開流民逃其島者甚多。再命三陟人金麟雨為按撫使、刷出空其地」라고 표기됨.

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산도는 어떤 섬인가? 『태종실록』(태종 17년 2월 을축조)에 의하면, 우산도에서 돌아온 김인우는 "그 섬의 호수, 대략 15가구로서 남녀 합해서 86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산도에는 15호가 입주해서 86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15리는 호수는 『태종실록』(태종 16년 9월 경인조)에서 호조참판 박습(朴習)이 무릉도(울릉도)에는 “옛날, 방지용(方之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5가구를 이끌고 입주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15가구와 일치한다. 이는 『태종실록』과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울릉도와 동일한 섬의 별명이라는 것이다. 사실 울릉도 주변에 15가구 86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은 없다. 하물며 암초의 섬, 현재의 다케시마는 될 수가 없다.”²⁹⁾라고 주장했다.

시모조는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산도가 지금의 울릉도와 동일한 섬, 즉 1도 2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김인우가 ‘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 되었을까? 라는 것에도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시모조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무릉등처안무사에서’ 동해에 무릉(울릉)도 이외에 또 다른 섬인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산도는 울릉도와 다른 별개의 섬으로서 명확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팔도총도에도 2개의 섬으로 그렸다. 그런데 시모조는 팔도총도에 2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한 개의 섬이라는 단정하는 것은 사료 해석의 조작 행위이다.

둘째로, 시모조는 대동여지도에 우산도가 없으므로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한백겸(韓百謙)은 『동국지리지』(1615년)에서 신라국의 봉강(封疆)에는 우산국에서 유래된 우산도만을 기재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편찬한 김정호의 『대동지지』(1864년)에서는 우산도를 삭제하고 울릉도만 남긴 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이미 「조선시대의 한백겸과 김정호 등에 의해 부정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⁰⁾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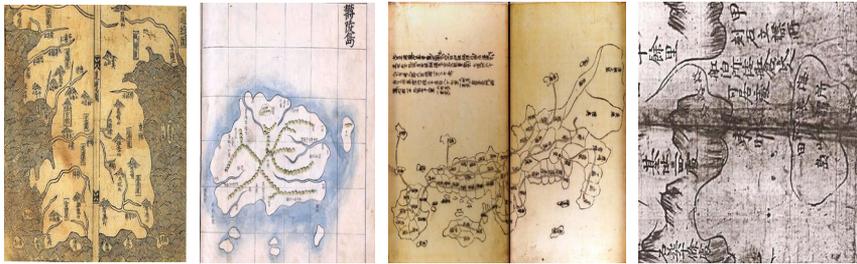
한백겸과 김정호가 그린 지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는 이유는 1403년부터 1882년까지 일반 백성들에게 울릉도 도항과 거주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조정의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조정에서는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고지도와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를 기록했다. 그것은 오늘날의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모조는 19세기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300년 이전 16세기의 팔도총도(그림3)를 해석하려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후세의 자료를 갖고

29)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0)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그 이전시대의 사료의 진실관계를 따질 수 없다. 대동여지도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논증되어야한다. 시모조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그 이전시대의 것은 반드시 그 이후의 시대에 답습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했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었으므로 대동여지도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어야 이후 시대가 이전시대의 사료를 참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19C)에 그려진 우산도에 대해, 시모조는 『동국여지승람』의 기사에 의거한 “팔도총도”의 우산도와 달리 『해동여지도』의 우산도는 『동국여지승람』과는 별도의 계보에 속해 있다. 한국 측이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근거로 삼았던 『해동여지도』의 우산도는 1711년 울릉도 수토사 박석창이 만든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에서 유래한다. 그 『울릉도도형』에서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이른바 우산도(所謂于山島)해장죽도(海長竹田)”라고 명기돼 있다.³¹⁾라고 지적하고 있다.



팔도총도(1530) 『해동여지도』 행기도(18세기) 『울릉도도형』

사실상, 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에 관해서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는 서로 다르다. 조선 중기의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지만, 조선 후기의 우산도는 오늘날의 「죽도(댓섬)」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가 조선 후기에 「죽도(댓섬)」를 가리키는 우산도로 표기한 것은 동해에 조선영토로서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늘날의 독도를 죽섬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 불과하다. 그러나 시모조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기 위해 때로는 동해에 그려진 두 개의 섬은 모두 울릉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산도는 독도와 전혀 무관한 지금의 죽도(죽서도)라고 하기도 한다. 시모조는 이러한 방식은 올바른 사료해석을 포기하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논리를 부정하기 위한 사료 해석 조작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1)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 “고문서를 봐도 독도는 한국영토”의 부정³²⁾

한국측은 “일본의 고문서들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서,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일본은 이러한 역사를 은폐하면서 한국 땅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막부가 겐로쿠 8년(1695년) 12월 24일 돗토리 번의 에도제후 저택(江戸藩邸)에 대해 울릉도는 언제부터 돗토리 번의 부속이 되었는가. 조상의 영지였는가. 돗토리 번에 입봉 후 영지가 되었는가를 물었다. 돗토리 번의 대답은 다음 날 문서를 가지고 막부에 제출되었다.」³³⁾ 「거기에는 울릉도는 이나바, 호키의 부속이 아니다(「竹嶋は、因幡伯耆附属ニ而は御座無候。」)³⁴⁾ 「마쓰다이라 신타로(이케다 미쓰마사)가 돗토리 번의 영지를 받았을 때 봉서(奉書)에 의해 도해가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松平新太郎領国の節、御奉書をもって仰せ付けられ候旨承り候。」)³⁵⁾라고 회신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시모조는 「돗토리 번에서는 무라카와 이치베 등이 막부에 울릉도 도해를 청원해 막부의 도해 면허(신하)를 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울릉도는 이나바, 호키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³⁶⁾라고 하여 「한국측이 “울릉도를 왕래한 돗토리 번은 독도가 돗토리 번의 영지가 아니다”」³⁷⁾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

이 문건은 막부가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자료이다. 당시 일본어부가 일본영역 밖을 넘는 울릉도행의 도항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이를 계기로 울릉도행의 도항을 금지시켰다. 독도는 일본영역을 넘은 울릉도를 도항하는 과정에 위치한다. 울릉도 도항의 금지는 바로 독도에 대한 도항금지였다.

여기서도 시모조의 특징은 아무런 합당한 논증 없이 일본측의 고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메이지정부³⁸⁾에 올린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朝鮮國

32) 「第3回「古文書を見ても独島は韓国領土」でない理由」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3.html
(검색일: 2013년12월1일)

33)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4)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5)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6)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7)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38) 앞에서 논증했듯이, 산조요 사네토미(三条実美)가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顕義)를 통해 일본인이

交際始末內探書)(1870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으로 된 경위에 대해」라는 제목 외무성에 「1870년 4월 조선의 부산에 출장한 외무성 출사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복명서」³⁹⁾를 제출했다.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경위에 대해 조사하게 한 것이었다. 사다 하쿠보 등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울릉도가 조선 땅으로 된 기록은 있지만 이웃 섬 송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된 기록은 없다”고 복명⁴⁰⁾했던 것이다. 사다 하쿠보가 「송도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고 한 것은 조선사정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군기요람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모조는 「사다 하쿠보 등이 “송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부분을 무시 혹은 “은폐”하고,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인정했다고 한다」⁴¹⁾고 하여 한국측의 주장을 부정한다. 그 증거로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에 「오늘의 죽서도인 우산도는 그려져 있는데, 송도(다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하는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 측에서는 송도(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라고 한다.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다른 고지도와 고문헌에서는 독도가 표기된 기록이 많이 있다. 조사결과는 「독도의 기록이 없다」라고 보고했다라도 메이지정부가 「죽도(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으로 된 경위」라고 하여 이미 그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죽서도인 우산도」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우산도는 원래 「울릉군도」가 아닌 「독도군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일시적으로 오기한 고지도가 있을 뿐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왜 독도가 없을까? 대동여지도는 오늘날의 지도와 사뭇 다르다. 당시 독도가 암초로 이루어져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독도를 알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마도도 한국지도영토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시모조의 특징은 아무런 합당한 논증 없이 일본측의 고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태정관지령에는 「죽도와 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태정관

「松島 일명 竹島」에 도항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통달했던 것임.

39)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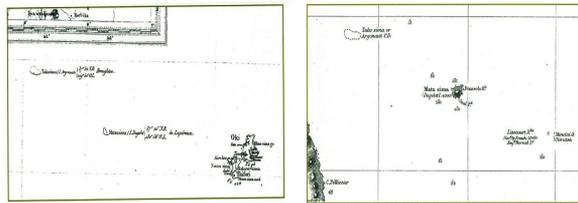
40)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1)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2)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지령문”의 “부도”인 “이소 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図)”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즉 메이지정부는 특히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라고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미 일본외무성이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조선의 부속 섬으로 된 경위」라고 한 것은 이미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부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시마네 현에서는 에도시대 이후의 지리적 이해를 근거로 울릉도를 이소 다케시마라고 했고, 현재의 다케시마를 송도라고 하여 이들 섬을 시마네현의 관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⁴³⁾ 「“태정관 지령문의 부속도”로서의 “이소 다케시마 약도”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지도이고, 태정관 지령문의 부도가 아니다」⁴⁴⁾라고 하여 태정관 지령문과 이소다케시마 약도와는 별개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문록』과 『대정유전 제2편』에 “태정관 지령문의 부도”로서의 “이소 다케시마 약도”와 “태정관 지령”을 철회해져있다. 그런데, “태정관 지령”은 메이지정부의 자료이지만, “태정관 지령문의 부도”로서의 “이소 다케시마 약도”는 시마네 현이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태정관의 인식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소다케시마는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시볼트「일본도」(1840). 영국해군지도「일본, 큐슈, 시코쿠, 조선 일부」(1863)

또한 시모조는 「죽도와 송도에 대한 메이지정부의 인식은 (시마네현과는) 달랐다. 당시 일본이 참고한 서양의 해도(海圖) 등에는 울릉도를 송도라고 표기한 시볼트의 『일본도』(1840년)⁴⁵⁾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죽도(아르고노트 섬)와 송도(울릉도)가 그려

43)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4)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5) 「지도(시볼트“일본도”)(“Karte vom Japanischen Reiche”, 1840년)에 “Takashima(Argonaut Island)”가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으로 되었고, “Matsushima(Dagelet Island)”는 북위 37도 52분, 동경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 노트 섬에 Takashima(죽도)라고 표기되었고, 다슈레- 섬=울릉도가 송도로 표기되었다.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한 현재의 독도는 1840년 시점에서는 서양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이 지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서양지도 등에 현재의 독도가 그려지는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이후이다. 그래서 한때 ‘해도’ 등에는 죽도(아르고노트 섬)와 송도(울릉도), 그것에 리앙쿠르 록스(현재의 다케시마)가 그려지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⁴⁶⁾라고 주장했다.

시모조는 ‘이소다케시마약도’에 섬의 형상까지 명확히 그려진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에 대해서도 「‘외1도’는 송도로서 지금의 울릉도」이라고 사료 해석을 조작하고 있다.

시모조는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것은 시마네 현도 마찬가지로 시마네 현령의 사카이 지로(境二郎)는 1881년 11월 12일 “일본해 내의 송도 개간에 관한 문의”⁴⁷⁾를 내무경(대신)과 농업 상무경에 제출했다.»⁴⁸⁾라고 하여 송도가 울릉도라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는 ‘송도’라는 명칭으로 울「송도개척원」⁴⁹⁾ 즉 울릉도를 송도로 오인한 것이다. 그래서 군함 아마기(天城)가 「마쓰시마는 울릉도, 그 외의 다케시마(죽도)가는 것은 일개의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중략) 고래 일본판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⁵⁰⁾고 했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1883년 태정대신 산조오 사네토미(三条実美)가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를 통해 일본인이 「松島 일명 竹島」에 도항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통달했던 것이다.⁵¹⁾ 이처럼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없었다. 메이지정부에서 1880년 이후 울릉도를 송도라 인식했던 것이다.

시모조는 고지도에 조선 동해에 「죽도」(울릉도-필자주)와 「송도」(독도-필자주) 2개의 섬이 등장하기만 하면, 모두가 시블트의 잘못된 지도 때문이라고 하여 위도와 경도의 오류에 의해 송도와 죽도 모두 울릉도라고 주장한다.

시모조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아무리 명확한 증거라도 일단 부정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다.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3.html
(검색일: 2013년11월5일)

46)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7) 원문은「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ニ付伺」라고 됨.

48)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49) 大西俊輝(2004)「마쓰시마 개척의 염원」『獨島』제이앤씨, pp.64-66. 1876년의 貿易商 武藤平学「松島開拓之儀」, 1877年 貿易事務官 瀬脇寿人和 児玉貞易, 斎藤七郎兵衛 3명이 함께 <松島開拓願>를 외무성에 제출했다. 여기서 외무성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본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大西俊輝(2004)「군함 아마기(天城)의 조사」『獨島』제이앤씨, pp.70-71

51) 大西俊輝(2004)「울릉도 도항금지」『獨島』제이앤씨, pp.71-72

5.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은 무효”의 부정⁵²⁾

시모조는 「1905년 1월 28일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타국이 이 섬을 점령한 흔적이 없다”고 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무효”라고 할 자격이 없다.”⁵³⁾고 했다. 이처럼,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당하다고 해야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시마네현 고시40호에서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905년 이전에는 무주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모든 사료적 근거를 부정해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모조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와 무관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1900년의 “칙령 제41호”의 ‘석도’는 울릉도의 동북 수십미터의 ‘도항(島項)’이었다.」⁵⁴⁾라고 했다.

첫째로, 시모조는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된 “칙령 제41호”에는 확실히 울도군의 행정 구역이 “울도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규정돼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그 석도를 오늘날의 독도라고 아무런 실증 없이 주장한다.」⁵⁵⁾라고 하여 한국영토론을 부정했다.

시모조는 그 증거로서 「실제로 ‘칙령 제41호’가 공포되는 3일 전, 내부대신 이건하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하기 위해 의정부에 제출한 ‘청의서’에서 울릉도의 강역이 “세로 80리(약 32km) 정도와 가로 50리(약 20km)”라고 명기되어 있다. ‘청의서’에 기록된 이 울릉도의 강역은 분명히 독도가 울도군의 행정 구역 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독도는 그 울릉도에서 더 동남쪽으로 90km 가까이(약 360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⁵⁶⁾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모조는 「내부대신 이건하가 울릉도의 강역을 ‘세로 80리정도 가로 50리’라고 한 것은 우용정(禹用鼎) 등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다.」⁵⁷⁾라고 했다.

시모조가 「울릉도에서 일본인에 의해 별목이 문제되어 이건하가 1899년 9월,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관에 임명했다. 현지에서의 청취 조사는 1900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일본 측에서는 부산 영사관의 아카즈카 시요우스케(赤塚正助) 부영사가 파견되었다. 그때의 개요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우용정의 『울도기』와 아카즈카 시요우스케 보고서 『울릉도 조사개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울릉도 조사개황』에는 ‘부도’가 수록되어 울릉도

52) 「第4回「1905年、日本の独島編入は無効」説の捏造」,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4.html

53) 전기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54)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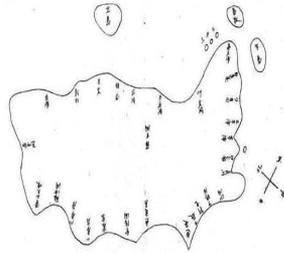
55)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56)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57) 상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眞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와 그 부속 섬으로 공도(空島), 도항(島牧), 죽서도(竹島)의 3섬이 그려져 있다.

시모조의 지적처럼 『울도기』와 『울릉도 조사개황』은 울도군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울릉도를 조사한 것이다. 시모조의 오류는 「울릉도」와 「울도군」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부도」는 「울도군」이 아닌 「울릉도의 조사개황」이다. 칙령41호에 의하면 「울도군」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고 표기하고 있다.



『울릉도 조사개황』



이규원의 『울릉도외도』

시모조는 「우용정은 울릉도의 범위에 관해 “길이 70리(약 28km)이고, 넓이 40리(16km), 둘레 140-150리(56km-60km)”의 섬이었다.」 「이것은 우용정이 현지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했으며 울릉도 도민 등이 울릉도를 일주하는데 “140-150리”가 되는 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용정은 둘레 “140-150리”의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할 것을 건의했고 그것에 의거하여 내부대신 이건하가 10월 22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청의서”를 의정부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용정은 울릉도의 범위에 대해 “길이 70리(약 28km), 넓이 40리(16km), 둘레 140-150리(56km-60km)”라고 했고, 이건하는 「울릉도의 강역이 “세로 80리(약 32km), 가로 50리(약 20km)”」라고 했다. 그런데 ‘우용정의 지식을 토대로 이건하가 의정부의 건의했다’고 하는 시모조의 논리라면 숫자가 동일해야한다. 그러나 이건하의 울릉도의 범위인식과 우용정의 범위인식은 서로 다르다. 즉 다시 말하면 우용정이 이건하에게 건의해서 이건하가 우용정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였다는 시모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처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관련시켜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논리를 조작하는 것이 시모조식의 사료해석 조작방식이다.

둘째로,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관해, 「‘칙령 제41호’ 제2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된 울도군의 행정 구역도 “청의서”의 범위를 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울도군의 죽도와 석도

는 울릉도의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를 아카츠키 시요우스케의 “부도”에서 확인하면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의 죽서도이다. 그렇다면 석도는 공도(空島)와 도목(島牧)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공도(空島)는 현재의 공 바위(孔岩)이고, 도목은 도항이 되었다. 아카츠키 시요우스케의 “부도”에서 공도, 도목(섬목)이라고 한국어 음을 한자로 옮겨 표기하고 있어 공도(空島)는 공 바위(孔岩)의 바위(岩)를 섬(島)으로 바꾼 점만 다르다. 도목(島牧)은 도항(島項, 섬목)과 동음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항(島項, 島牧)은 1882년 울릉도를 답사한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도』와 『울릉도 검찰일기』 등에 등장하고,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일기』에서 도항과 죽서도(죽도)를 “두 작은 섬(二小島)”⁵⁸⁾이라고 표기했다. 이후 죽도(죽서도)와 도항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알려져 1910년 대한 제국이 간행한 『한국수산지』에서도 울도군의 부속 섬으로 ‘죽도(죽서도)와 서항도(도항) 두 섬과 구멍 바위’를 표기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본 측에서는 죽서도를 죽도, 도항(서항도와 관음도)을 ‘석도’로 한 것⁵⁹⁾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지적해둘 것은 한국말로 ‘도항(島項)’과 ‘도목(島牧)’은 동음어라고 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시모조는 칙령41를 제정할 때 마치 아카츠키 시요우스케의 “부도”를 표준으로 했던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 지도를 모방하고 답습했다면 왜 “도항”이라하지 않고 ‘석도’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도항이 석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조선조정에서 한일 간에 영토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울릉도 사람들이 불렀던 「독섬」 혹은 「독도」를 한자어로 표기하여 「석도」라고 명칭했던 것이다.⁶⁰⁾ 거기에는 논리성은 없고 모순성만 있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셋째로, 도항이 석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도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고 나서는 서항도라고도 표기되어 1909년에 작성된 해도에서는 “somoku somu(섬목섬-필자주)”와 한국어음의 읽는 법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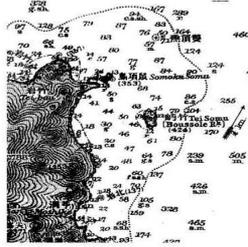
58) 이규원은 「울릉도외도」에는 울릉전도와 죽도와 도항을 섬으로 표기했다. 나머지는 암석으로 표기했다. 독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규원의 감찰 목적에는 울릉도 이외의 또 다른 섬 즉 「우산도=독도」를 찾는 것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다.

59) 전계의 下條正男 「竹島の眞実と獨島の《虚偽》」에서 인용

60) 최장근(2012)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21-240



島項(鼠項島。觀音島)



「해도308호」(竹邊灣 至水源端)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속도가 ‘석도’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도항과 석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항도(somoku somu)의 서항을 전통적인 발음 표시 법(“반절”)로 읽으면, 서(so)의 모음(o)이 제외되어 목(moku)의 첫번째 자음(m)이 생략되어, 서항은 “(속) soku”(뜰)이다. 서항도(somoku somu)를 “반절”로 읽으면, 석도(soku somu)로 된다. 이것은 1882년의 시점에서는 섬의 형상으로부터 도항(섬목)으로 표기되고 있었지만, 1900년에 석도(soku somu)가 되면, 그것을 전후해서, “반절”에서 “soku somu”가 되는 서항도로 표기를 바꾸었다는 것이다.⁶¹⁾라고 했다. 한국의 발음상으로 서항도와 석도는 전혀 상관없다. 「전통적인 발음표시법」을 활용했다는데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한국학자는 없다.⁶²⁾ 따라서 시모조의 논리는 설득력 있는 논증은 하지 않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논리를 부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넷째로, 시모조는 1903년 쿠즈 오사무스케가 발간한 『한해통어지침』에 대한제국의 강계를 “동경 124도 30분 내지 130도 35분”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한 라온코 섬은 분명히 대한제국의 강역 밖에 있었다고 주장한다.⁶³⁾ 쿠즈 오사무스케가 한국영토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메이지정부의 공문서에 의하면 해석상으로 1970년과 1977년 울릉도와 같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⁶⁴⁾ 이 공문서는 서로 7년의 격차가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1977년의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은 1970년에 사다

61)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62) 한국의 전통적인 반절법에 의해 「서항도」가 「석도」로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받을 설득력 있는 논증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논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 대한 인용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음.
 63) 전계의 下條正男「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에서 인용
 64) 산조 사네타미(三条実美) 태정대신의 ‘울릉도 도항금지령’, 태정관 문서에서 ‘죽도의 1도(독도) 일본영토와 무관’,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등이 있다.

하쿠보가 ‘공문서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독도에 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독도=한국영토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시볼트가 「일본도」를 잘못 그려서 그것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송도」는 모두 「울릉도」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거기에는 설득력은 없고 모순성만 보인다.

사실상,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증거는 한 점도 없다.⁶⁵⁾ 반면 당시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일본정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는 사료는 많다. 그래서 일본의 영토편입초치 「시마네현고시 40호」는 타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

6. 맺으면서

본 연구는 ‘다케시마=일본영토’라는 논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그 조작방식에 관해 고찰했다. 전통적으로는 오쿠무라 헤키운(奥原碧雲)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를 답습하여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⁶⁶⁾와 가와가미 켄쥬(川上健三)⁶⁷⁾가 체계화했고, 현재 이를 답습하고 있는 자가 시모조 마시오이다. 그는 「죽도문제연구회」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왕실의 지리지에 「우산도, 울릉도 2섬은 조선 동해에 위치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바람이 불면 서로 잘 보인다。」라고 하여 조정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조선영토로서 관리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은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모조는 무리한 방식으로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1도2명」으로서 동일한 섬에 대한 다른 명칭이 2개라는 주장을 한다. 즉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에서 발행된 고지도(관찬, 사찬포함)로서 조선 동해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명확히 표기한 지도들이 매년처럼 발굴되고 있다.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모조는 시볼트가 「일본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죽도(울릉도)-송도(독도)」의 경위도를 잘못 표기하여 유럽지도에서 「죽도(실존하지 않는 섬)-송도(실제의 울릉도 위치)-리앙쿠르(실제의 독도 위치)」라는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 동해에 「죽도-송도」형태의 두 섬이 그려진 모든 지도에서

65) 이미 内藤正中, 山辺健太郎, 堀和生, 梶村秀樹 등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인의 역사학자들이 논증했다.

66) 田村清三郎(1996)『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67)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죽도(울릉도)도 울릉도이고, 「송도(독도)도 울릉도이다」라는 방식의 사료 조작 해석을 하여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요컨대 시모조는 사료를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는 것은 아예 포기하고 시대적 관련성이나 내용적 접합성도 무시하고 「막무가내 끼워 맞추기식」으로 「독도=한국영토론」을 부정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나이토우 세이쥬우(2005)『독도와 죽도』제이앤씨
동북아역사재단편(2009)『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제1부 1948-1976』동북아역사재단
송병기(1999)「地方官制 編入과 石島」『鬱陵島와 獨島』단국대학교출판부. pp.112-132
_____(2004)「광무(光武)4년(1900) 칙령(勅令) 제41호」『독도영유권 자료선』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pp.237-241
신용하(1996)「일본 메이지정부 내무성과 태정관의 조선왕조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pp.164-171
최장근(2005)「대일평화조약에 있어서 영토처리의 정치성」『일본의 영토』백산자료원, pp.33-71
_____(2012)「일본정부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죽도’ 영토확립의 억측 주장」『일본문화학보』제53집, 한국일본 문화학회, pp.261-277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29-211
外務省(2013)「竹島問題」, 「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外務省
高野雄一(1962)「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日本国との平和条約)」『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pp.347-349
田村清三郎(1996)『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板,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島根県(2013)「竹島問題研究會」,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3년12월4일)
下條正男(2013)「竹島の真実と独島の《虚偽》」,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dokdo/takeshima-dokdo_1.htm(검색일: 2013년12월4일)
毎日新聞社編(1952)『対日平和条約』毎日新聞社刊
内藤正中・金柄烈(2007)『史的検証竹島・独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新幹社
大西俊輝(2004)「울릉도 도항금지」『獨島』제이앤씨, pp.71-72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会’의 일본영토론 조작방식

독도가 암초로 된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된 고지도와 고문헌이 많이 존재하는 편이다. 이들 모든 고지도와 고문헌은 한결같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고 1905년 ‘죽도’라는 이름으로 주인 없는 섬을 일본영토에 편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신영토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영토로 해석되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를 부정해야한다. 그래서 시마네현이 설치한 죽도문제연구회가 이런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를 말한다. 그런데 연구회 논리적인 논증 없이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죽도’(울릉도)와 더불어 ‘송도’(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연구회는 죽도도 송도도 모두 울릉도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제국의 ‘칙령41호’는 울도군을 설치하여 그 관할범위를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정했다. 여기서 석도는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연구회는 논리적인 논증 없이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가 한국영토인 것을 부정하고 일본영토임을 주장해야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을 수 없다. 연구회는 제대로 된 논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국영토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료해석을 조작하여 일본영토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The “Takeshima = Japanese Territory” of the Official Logic Operation of Japan(Takeshima Problem Study Group)

Dokdo is the small islands of reef.

Nevertheless, There are literature-related Dokdo with a lot of old maps and old side.

All these maps and documents prove that Dokdo is a territory of Korea.

But Japan is ignoring the historical these evidence.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o get a reasonable new Japanese territory with international law in 1905, because the island has not the owner.

Japan has should be denied that a lot of historical evidence are Korean territory, in order to say that Japanes actions are justified.

Than “Takeshima Issue Study Group” installed Shimane Government worked these operations.

Dokdo of now was Usando in Joseon Dynasty. The Study group is claiming that Usando is Dokdo without the right logical interpretation.

The Meiji government also clearly said ‘Takeshi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was not the territory of Japan. But Takeshima Issue Study Group is insisting that all of Matsushima and Takeshima are Ulleungdo.

‘Empire of the Korean Emperor command’ No. 41 installed Ulleungun with Ulleung Jeondo, Jukdo, Seokdo. Dokdo.

It is clear that Seokdo is Dokdo. But The Study Group argue Seokdo is not Dokdo, Seokdo is Kaneomdo thus they deny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Japan had argu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To do this, there can be no convincing argument to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of Japan.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up create Japanese territory theory unconditionally without proper demonstration to deny Korea territory theory how to interpretation of the negative feed in a way.